

기독교무용과 박순자 리더십에 대한 분석

이선미 (진형중고등학교 교사)

요약

현시대의 기독교 문화예술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복음을 선포하는 예술로서, 기독교 문화예술가와 회중이 서로 공감하며 가슴으로 체감하고 영적 감동을 전해주는 성경적 설교라 할 수 있다. 인종, 문화, 언어, 세대를 초월한 기독교문화예술의 중심은 이웃을 가슴으로 수용하며 그들과 소통하고 그들이 갖는 관심을 함께 느끼며 그들이 겪는 아픔이 무엇인지에 대해 밀착하여 가는 것이다. 이러한 성육신적 선교적 기독교 문화예술에 배는 기독교인이나 비기독교인 모두에게 복음이 소통될 수 기회와 예수님을 경험하게 하는 일을 만들어 낸다.

기독교 문화예술 중에서도 기독교무용은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보지 못한 자들에게 따스한 온기를 느끼게 해주는 성육신적 예배로 성경을 기초로 준비할 때, 믿음의 성도에게는 예수그리스도의 복음의 확증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구원의 확증을 심어주는 계기가 될 것임을 확신한다.

기독교무용을 통한 복음의 중심은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예배, 그 임재 안에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더 가까이 하나님의 호흡을 느끼며 복음의 길로, 순종의 길로 나가는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화려함과 외형적으로 보이는 거룩함 그리고 성경적 본질을 떠나 비기독교적인 메시지로 하나님께 드러질 때, 영적인 힘과 예수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인한 부활의 생명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깨닫게 된다. 즉 하나님께 드러지는 산 제사로서의 기독교무용이 표현해야 할 메시지가 어떠한 외형적 표현과 내면적 신앙으로 표현할 것인가는 매우 중차대한 사안이라 할 수 있다. 이는 기독교무용인이라면 모두가 심사숙고해야 할 부분이다. 특별히 성경의 기록을 살펴보면 아브라함, 야곱, 요셉, 모세, 베드로, 바울 등과 같이 하나님은 리더십을 세우셨고 그들을 통해 일하셨던 것을 볼 수 있듯이 복음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사람들을 인도하고 성장시키며 사역할 수 있도록 하는 기독교무용의 리더가 얼마나 중요한지 인식하게 되었다. 또한, 연구자도 기독교무용으로 사역하면서, 복음의 도구인 기독교무용의 원동력을 가지고 이미 이웃을 위한, 선교를 위한 예배공연과 작은 사역의 섬김 들을 통해 예수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숙명여자대학교 박순자 교수의 리더십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박순자 교수의 리더십은 20년 넘게 진정한 기독교무용의 선구자적 역할을 감당해왔다. 기독교무용사역의 모델로 그리고 다른 기독교무용인들에게 동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성경적 성품과 비전 그리고 관계와 기술이라는 성경적 원리인 이 네 가지 요소에 근거를 두고 연구하였다.

박순자 교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리더십의 중심인 영성을 핵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 가며 하나님의 목표를 성취해가도록 인도하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이러한 리더십은 진정한 복음의 의미를 전하며 실천신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활용하며 현대교회에 적용되고 있는 중요한 변화를 느끼게 해주었다. 쉽게 복음을 전할 수 없는 현 시대에 기독교무용을 발판으로 그리고 진정한 예수님의 리더십을 모델로 삼아 상호 의존하여 세대 간 민족 간에 이질감과 거부감 없이 복음을 선포하며, 하나님나라를 이루기 위한 목적으로 기독교무용 예배와 더 많은 하나님의 리더들이 만들어가길 소망한다.

주제어: 기독교무용,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복음

I. 서론

현대 포스트모던 시대의 사회적·역사적 혼란 가운데서도 기독교는 성육신적 선교적 접근방식으로 말씀 안에 거룩한 삶을 살고, 미그리스도인들을 위해 기도하며 자신이 사는 지역사회로 들어가 예수그리스도의 사랑 즉 복음의 핵심을 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성육신적 선교란 복음을 성육신적으로 합당한 방식으로 구체화하여, 사람들이 자신의 문화와 삶 속에서 예수님을 경험하게 하는 일을 의미한다(마이클 프로스트 . 앨런 허쉬, 지성근 역, 2009, 83).

하나님을 예배하며 만유의 주로 고백하는 복음적 가치를 두는 다양한 예배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권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엡 6:12)는 말씀으로 세워가며 진리 안에 깨어있는 예배로 이끌어가고 있다. 이러한 예배 안에서 기독교 문화예술의 범위는 무용, 연극, 음악, 영상, 미술, 조형물 등 여러 예술 장르가 다양하게 사용되어지고 있다. 그 중 하나인 기독교무용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깊은 영성과 하나님과 깊은 호흡으로 몸과 마음을 표현해야 됨을 깨닫게 된다. 나아가 기독교무용의 인식과 활성화 그리고 올바른 역할과 방향성을 제시하며 발전하기 위해서는 삶의 육적인 절제와 영적인 성숙을 요구하는 복음적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사역자의 양성이 절실히 필요함을 깨닫는다.

이에 본 연구자는 기독교무용으로 예배하며 후진을 양성해온 박순자 교수의 리더십을 통하여 기독교무용을 하는 사역자들이 복음의 본질 앞에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고 기독교무용인으로서의 본분과 리더십으로서 가져야 할 덕목이 무엇인지 재고해 보아야 할 것임을 깨닫게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독교무용의 개념을 살펴보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박순자 교수의 성경적 리더십을 연구하며 한국 교회에서 기독교무용이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 연구하는 것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러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더 많은 사역자를 배출함으로써 쉽게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세대 간 민족 간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에 밑바탕이 될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필요성으로 기독교무용은 현대교회에서 중심적 역할을 가지고 활용되며 체계적으로 적용하여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사료된다. 이에 박순자 교수의 녹취록과 그의 저서 그리고 20년 넘게 동역하며 함께한 삶

을 통해 예배의 본질을 배워온 박순자 교수의 리더십을 연구하고자 한다.

Ⅱ. 복음사역에서의 기독교무용의 역할

기독교사상의 본질은 복음서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적혀 있는 것처럼 인간 각자가 자기 자신을 신의 아들로 인식하여 그 인식으로부터 나오는 신과 인간의 상호간의 교류를 통해 진정한 사랑을 표현하는데 그 정의를 두고 있다(톨스토이, 이철 역, 1988: 35). 따라서 기독교예술로서의 무용은 성경에 나타난 기독교사상과 신앙적 고백을 가지고, 종교적인 성향에 따라 가장 간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전하고 표현해내는 몸의 언어이며 움직임이라 할 수 있다(이선미, 2011:7).

기독교무용이란 영과 육의 통전적인 의미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구속의 과정이며 해방을 갖는다(송정은, 2001: 46). 더불어 하나님을 향하여 인격적으로 반응하고 자신의 내면적 감정과 신앙심을 표현하는 가장 적절한 도구라 할 수 있다.

예수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있어 가장 구체적인 도구라 할 수 있는 무용은 권세 있는 능력의 말씀으로, 하나님과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위로와 기쁨,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신령과 진정을 다해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신실함과 온전함은 기독교 무용을 할 때 중요한 요소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전 6:20)고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성령의 전인 생명력 있는 몸으로 감사와 찬양과 순종을 받으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의미라 할 수 있다.

오늘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기독교무용은 자신의 은사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고통당하고 외면당하는 자들을 위하여 쓰임 받는 예배의 도구가 되어야 한다. 그 의미는 한 영혼 한 영혼이 집중하는 예배에서 기독교무용을 통하여 문화와 예술, 복음과 선교 그리고 치유의 영역으로 기독교의 복음을 확증시켜 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예수그리스도의 복음(유앙겔리온 εὐαγγέλιον)이란 기쁜 소식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이 인간을 죄와 죽음의 상태에서 구원한다는 약속과 그 사실을 의미한다.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103094&cid=40942&categoryId=31576>)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 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마 28:18-20)는 말씀처럼 예수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목표로 날마다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기독교무용 안에서의 진정한 제자는 육적인 표현이 아닌 하나님과의 접촉점에서 감동으로 다가와 무너뜨릴 수 없는 영적인 힘을 자신의 영혼과 육체에 머무르게 하는 원동력으로 표현되어야 한다.

복음사역 안에서의 기독교무용의 역할은 하나님에 대한 내용으로 성부 성자 성령 하

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명확히 나타내어야 하며 예수그리스도의 심장을 힘껏 두드리는 성육신적 예배에 관하여 표현되어야 한다. 그리고 복음 앞에서 기독교무용은 말씀이 서 있는 성경적 설교여야 한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한 성도들에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권면하는 성화의 도구의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말씀과 기도와 찬송의 힘으로 세워진 기독교무용은 매일 주님께 드리는 거룩한 삶의 표현이며 예배인 것이다.

십자가의 복음 안에 예수그리스도는 끝까지 사랑하시되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그 사랑을 표현하셨던 것처럼 기독교무용 역시 이러한 예수그리스도의 사랑을 영과 혼과 육으로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전하는데 목적을 두어야 한다.

Ⅲ. 기독교무용가 박순자 리더십에 대한 분석

1.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만남

기독교무용의 본질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기독교무용가 박순자 리더십을 분석한다.

현재 박순자 교수는 숙명여자대학교 무용과 명예교수이며 한국기독교무용학회 회장, 한국무용예술학회 이사, 한국무용교육학회 이사, 솔트팬 이사장, 수가성교회 담임목사로 사)Argon Dance Association(구,한국선교무용예술원)대표를 역임하고 있다.

박순자 교수는 수석으로 9년간의 서울 시립 무용단 생활과 인천 교육대학에서 교수생활을 하면서 한국무용 아카데미 초대 회장, 설무리 초대 회장, 제5회 대한 민국 무용제 안무상 수상 등 무용가로서 큰 실적을 거두었다. 그 후, 숙명여자대학교에서의 교수생활은 참 교육을 체득하게 하고, 모태신앙이 아닌 그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계획이었음을 고백한다.

그 당시 학교에서의 큰 문제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게 되었으나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박순자 교수는 하나님을 찾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역사하심을 깨닫게 되었다. 세상과 동행하며 가장 모범적인 것 같아 보이던 자신이 위선자라는 생각이 들었다. 강권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기였다. 지속적으로 밤을 새면서 성경을 읽고 시간을 정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적 습관은 하루도 거르지 않았다. 1988년에는 미국 웨스턴 미시건 유니버시티에 교환교수로 나가면서 한국무용을 소개하고 선교무용이라는 장르에 본격적으로 눈을 뜨게 되었다. 지금까지의 무용생활을 그만두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믿음의 춤을 추겠다고 작정하였다(박순자, 2001:39)는 결심을 하게 되었다.

이 깨달음은 전적인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알게 되었고 이후 신학공부를 시작하면서 예수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을 더 깊이 느낄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다. 신학대학원을 오가는 두 서너 시간을 찬송을 크게 부르며 기도하는 시간들이 박순자 교수에게는 엄청난 축복이었다. 그러나 전도사, 강도사, 목사고시까지 한 계단씩 올라가면서, 자신을 더 부인하기 위해서 목회를 하자는 마음은 사실 어려운 결단이었다고 회고한다.

2. 박순자 교수 리더십의 네 가지 측면

1) 기술

(1) 교육을 통한 학원 복음화

박순자 교수는 교육을 통한 학원 복음화를 위해 숙명여대를 황금어장으로 생각하며 전도했다. 일반학생, 무용과 학생 관계없이 말씀을 토대로 강의하고 전도를 하면 한쪽에서 싫은 표정을 하는 학생들도 있었지만 두렵지 않았다. 아침마다 일찍 숙대 정문 앞에서 학생들에게 전도지를 나눠 주며 복음을 전했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이라 생각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의 때로 삼으라' 하는 말씀이 그의 귀와 마음에 늘 살아 있었으며 그것이 자신이 캠퍼스에 있는 이유이며 목적이라 하였다. 그래서 인지 업무로 만나는 사람, 개인적인 일로 만나는 모든 사람, 강의 가운데 만나는 모든 사람이 전도 대상이며, 전도가 삶의 목적이라는 생각으로 살았다.(박순자, 2001:52). 단 5분이라도 학교 학부와 석·박사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강의시간에 많은 노력을 하였다. 이러한 믿음의 행보 중에서 가장 기쁘고 보람 된 일은 졸업 이후 학생들이 한 명 두 명씩 교회 나간다는 소식을 들을 때였으며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박순자 교수는 예술론, 미학, 무용사, 창작론 등의 강의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직접적으로 몸과 마음으로 연관이 되는지를 지도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성경적으로 풀어가는 수업내용은 자신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이 하신 사역이라고 생각하였다. 그 외에도 숙명무용론 연구회를 발족해 무용과 대학원 학생 중심으로 인재를 양성하여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무용 분야 전반의 연구들을 현재까지도 지속 하고 있다.

박순자 교수의 작은 활동이 시작되고 숙명연합성회 예배가 첫 번째로 드러지므로, 대학교 안에서 믿음의 교제도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다. 하나님께서는 숙명여대 무용과 에서부터 지경을 넓혀가며 교수님들과 서로 연합하고, 영적으로 교류하는 많은 일들을 통해 지경을 넓히게 하셨다. 또한 매 학기마다 믿음이 있는 석·박사 학생들과 함께 기독교와 관련된 믿음의 논문들을 지도하며 이를 문서선교하고 믿고 행하였다. 박순자 교수는 '학원의 복음화를 위해 계속 믿음으로 행하다보니 어려운 일들도 있었지만, 지금까지 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많이 읽게 하시고 기도를 많이 하게 하신 은혜라 생각한다'. 또한 '하나님께서 계속 인격적으로 끌고 가시겠지만 항상 기도모임이 있게 하신 것도 감사하며 학교라는 공간 안에서 숙명 목요 찬양 무용제 예배를 드리고 전도할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하신 것에도 감사하다.'고 하였다. 또 하나 괄목할 만한 것은 '평생교육원 선교무용과정과 워십과 무용이라는 교양과목을 만들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한 감사였다. 박순자 교수는 현재 기독교 무용학회 회장으로, 기독교 세계관 학술 동역회 공연예술 분 과장으로 활동하면서 기독교학술세미나를

춘·추계로 진행하고 있다. 이렇듯 믿음으로 기획을 하도록 하나님이 인도 하셨고 교수들과 함께 영적인 것에 협력하여 선을 이루며 함께 캠퍼스 복음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게 기회도 주시고 기획하는 마음과 기쁨도 주신 것에 감사했다.'라고 회고한다.

숙명여대에 무용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이론 강의와 더불어 기독교무용을 알렸다. 강의를 통해 제자들에게 하나님에 대해 자주 전하면서 기독교무용 공연을 저렴하게 티켓을 공급하며 감상문을 쓰게 하였는데 그 이유는 기독교무용을 소개함으로 제자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춤을 심어주고 나아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고 싶었기 때문이다(박순자, 2004:116). 많은 감상문 글 중 짧은 두 글을 소개한다.

① 이 작품은 꼭 공연을 위한 작품을 떠나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 번 느끼게 했다. 작품이 끝나자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고 가슴에서부터 우리나라의 박수를 아끼지 않았다. 무용도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고 경건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② 저는 이번 공연에 대해 평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공연이 좋고 나쁜 것을 떠나서 저는 이번 공연을 통해 진정한 무용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교수님의 공연을 보고 제 자신을 돌아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좋았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하나님을 전부 믿지는 못 할 것 같습니다. 잘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곁으로 한발자국 다가간 것이 아닐까 하는 느낌입니다(박순자, 2001:131).

(2)기독교무용의 개척자

1990년에 「출애굽」을 첫 작품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춤, 말씀의 춤을 추자는 뜻으로 박순자 선교무용단을 발족하여 연습을 시작하였다. 가장 중요하게 단원들에게 양육 시켰던 것은 항상 선교를 행한 뒤 영적인 마음자세였다. '서 있는 줄 알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신 말씀처럼 성공리에 모든 일이 진행될 때, 더욱 근신하며 겸손히 행치 아니하면, 인간의 교만, 자만, 자랑을 틈타 하나님의 영광을 육신과 세상으로 넘기 우려는 마귀의 꾀계 앞에 쓰러진다는 것을 강조하며 십자가의 길을 헛된 것에 돌리지 말아야 한다고 훈련시켰다(박순자, 2001:65)고 한다.

1987년 개인적으로 힘든 일을 겪은 후, 기독교무용 작업을 해오면서 교회에서 하는 무용이 하나님을 만나 기뻐서 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은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기독교무용에도 가르침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신하여 숙명여자 대학교 평생교육원에 '선교무용반'이 주님의 은혜로 개강되어 본격적인 기독교무용 교육을 시작하게 되었다. 이에 대해 박순자 교수는 '자신의 입술에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게 하시고, 이론과정에서도 모든 과목마다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었던 것은 성경말씀을 통하여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하였다.

기독교무용과정에 많은 학생들 참여로 선교무용단이 확장이 되어갔다. 하나님을 믿는 연예인 단체인 미리암 선교단에서 연기자인 '최선자 권사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안무를 맡

을 사람을 놓고 단원 모두가 기도했는데 숙대 무용과 박순자 교수가 맡아주는 걸로 결정되었으니 수락해 달라는 요청하였다. 신약 성서의 예수님 부활까지 뮤지컬을 만드는 데, 안무를 하면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느꼈다. 나도 울고 날 보는 사람들도 울고, 거기에 모든 출연진들이 눈물로 공연을 하나님께 드렸다. 선교무용단과 같이 연합하여 국내 공연과 LA에서 공연하면서 선교가 무엇인지 깨달았다고 하였다. 또 차츰 자신의 성격이 변하고 세상을 보는 믿음의 눈으로 서게 되면서 예수님이 세상을 향해 보시는 눈이 무엇인지 아주 조심스럽게, 조금씩 알아 가게 하시는 시간들이었다고 하였다(박순자, 2001:71).

서서히 기독교무용이 영향력을 갖게 되면서 선교활동이 활발해졌다. 한국 선교무용단은 굉장히 다양한 체험을 하나님이 시키시며 쉽 없이 훈련을 시키시고 굉장히 충성되게 한 단계씩 훈련되었다. 이러한 전도는 현재 선교단 단원들도 선교무용 연습을 시작하기 전에 숙명여자대학교 기독교 동문 모임인 솔트팬 성전에서 예배를 드린 후 모든 단원들이 전도지와 전도용품을 가지고 전도 한 후 연습에 임한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전도 사역 중 중요한 한 가지는 매년 정기공연을 마치고 극장에 관계된 분들에게 항상 성경책에 감사의 글을 쓰고 선물로 드리는 것으로 귀한 모습과 마음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귀한 사역인 것을 깨닫게 된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요13:1).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요13:5).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유월절 저녁식사를 하시며 제자들의 발을 한 명씩 씻기시고 끝까지 사랑하며 섬겨주셨던 그 모습과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씻고 구원하시기 위해 보여주셨던 그러한 사랑과 섬김을 박순자 교수의 리더십을 통해 다시 한번 묵도하며 눈과 마음과 귀와 손으로 하는 그 섬김을 제자들이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는 것은 감사한 일이며 이것이 곧 예수그리스도의 복음임을 깨닫게 된다.

기독교무용을 행하는 사역지는 민족사랑회를 통한 노숙자들의 선교, 소록도 한센병 환자의 선교, 교도소 선교, 부녀자 재활원의 선교, 노인 대학을 통한 노인들의 선교, 거리 문화 사역을 통한 지하철 선교, 해병대 선교 등으로 이 세상에 소외되고 버림받은 연약한 자들과의 만남이 더욱 깊은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다. 매일 “하나님 믿으세요”라는 말을 하지 않으면 밥 먹기가 부끄러울 정도로 삶 가운데 하나님과 같이 살기를 즐거워하였다. 박순자 교수는 선교무용을 지도하며 믿음의 현숙한 여인으로, 가정과 사회 그리고 국가를 위해서 빛을 발하게 해야 한다는 마음과 또 무용을 통한 선교의 길을 택한 자녀들에게 자신의 무용 체험 및 지식을 전하여 주므로, 견고히 설 수 있도록 단원들을 섬기게 되었다. 에스더 같은 여인들, 미리암 선지자 같은 여인들이 되기를 원하면서 성령보다 육체의 연습과 상황을 앞세우는 일이 없는 깨어 있는 무용인으로, 무용 선교사가 되기를 다시금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믿는다(박순자, 2001:133). 이렇게 지속된 선교무용단 활동은 초교파로, 전공자. 비전공자 관계없이 파트로 나누어 진행되며 한 해 100회가 넘는 국내선교와 해외선교로 단원들이 예배사역을 드리게 된다.

박순자의 리더십 방향으로 홍보 및 방송에 내보내지 않는데도 국내외 많은 사역지에서 요청이 들어온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 매 순간마다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는 단원들의 중심이 있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특히 해외선교를 준비하며 갈 때는 쉬지 않는 영성훈련을 강행한다. 몸으로 드러지는 예배자의 특성 때문에 한국에 들어오는 시간까지 항상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도록 훈련시킨다. 무용의 은사를 가진 선교팀이라는 인식 때문에 보는 시선이 화려하게 보는 분들도 있지만, 아르곤 선교무용단의 마지막 그림자는 항상 오직 예수그리스도로 마무리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감동을 전하고 있다.

매년 대한민국 선교무용 축제를 통해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전공·비전공으로 분류해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2011년부터 아르곤 댄스 페스티벌을 개최해 참 진리를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것을 기쁨으로 삼아 신앙심이 높고 무용 예술적 실력이 뛰어난 무용 팀과 기독교문화예술팀을 찾아 무대에 올리고 있다.(박순자, 2015:51).

박순자는 그의 저서 '21세기의 기독교적 무용의 접근' 에서 선교적 의미로서의 기독교적 무용이란 하나님을 만난 후 살아 계신 하나님과 우리 죄를 사하시는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에게 이 땅의 삶을 위해 주신 성령님을 통하여 무용이라는 은사로 하나님을 위해 추겠다고 서원케 하시고 그 기쁨을 주시어 추게 된 것이 선교 무용의 출발점이 되었다(박순자, 2004:90).

박순자 교수의 기독교무용 특징은 다음과 같다.

- ① 선교무용을 올리기 전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람에게 죄지은 것은 없는지 돌아본다.
- ② 선교 무용을 하면서 나의 마음을 비어 주님으로 충만케 한 후 무용을 하려고 노력한다.
- ③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교 무용을 해야 한다는 그 중요한 점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끝까지 주의 음성을 듣고 선교에 임한다.
- ④ 선교 무용할 때 모든 호흡, 시선, 감정, 움직임을 통해 더욱 최선을 다해 목숨을 걸고 한다.
- ⑤ 대체적으로 음악, 무용 내용은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들어간 것을 택하고 또 주로 주님의 능력, 은혜, 고통 받으심 등, 십자가의 은혜가 있는 것을 택한다.
- ⑥ 하나님께서 채워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가급적 사례비가 없는 선교를 한다. 먼저 남에게 짐 을 지워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후원을 받으러 다니는 자체가 시간의 낭비이며 예술성 함양 노력에 집중할 수가 없다. 그리고 돈에 관심을 가지는 '선교무용'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적지만 스스로 각출한 재원으로 무용단을 운영한다. 그래서 우리 무용단은 "강성"이 되어 있다.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해주셔서 특별한 로비를 하지 않았는데도, 자연스럽게 사역이 들어오고, 우리 공연을 보고 구언을 얻는 사람들은 보면 스스로가 회복된 확신을 가질 수 있다(박순자, 2015:16).
- ⑦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안에 거해 있다면 굳이 홍보를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 방식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실 것이라고 믿는다.
- ⑧ 선교 무용을 위해서 전 단원이 자비량 선교를 한다.

⑨ 하나님 나라에 가기 전까지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고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말씀 목상과 기도를 꾸준히 한다(박순자, 2001:158).

2) 성품

우직하다고 생각될 만큼 가급적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의뢰하려는 고집 때문에 어려움도 있었지만, 많은 분들의 중보기도와 큰 물질과 봉사로 섬겨주시는 귀한 분들이 계셔서 지금까지 선교무용단을 이끌어왔다고 회고한다. 오랜 세월동안 곁에서 사역한 많은 단원들과 제자들은 박순자 교수를 하나님 앞에 '성령의 춤으로 예배하는 눈물이 많은 목회자'라고 한다.

하나님을 만난 후, 개성이 강하고 말이 많은 무용학과 안에서 교수의 직임으로 자신의 모습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전하므로 교수평가에서 좋지 않은 평가가 나와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영적 리더로서의 노력과 담대한 의지를 많이 보아왔다. 따스하면서도 주님의 일에 그리고 복음 앞에 설 때는 사도바울과 같은 강직함과 단호함으로 선교단을 이끌고 있다. 여성들로 조직된 선교단원들로 인해 국내선교, 해외선교를 다닐 때 마다 항상 주변을 정결하게, 조용히 그리고 잡음이 들리지 않도록 절제하는 훈련을 받아왔다.

하나님의 사역 앞에서 타협하지 않고 강직한 성품으로 단원들이 다니는 선교지마다 선교사님들이 감동을 받고 회복하는 것을 많이 경험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박순자 교수의 삶은 기독교무용의 예배는 오직 예수그리스도여야 한다는 중심이 변질되지 않도록 붙잡고 가고 있는 하나님 주신 리더의 가장 중요한 성품이다.

3) 비전

박순자 교수는 세상의 시선과 관계없이 성령이 충만하고 순전한 무용인들이 춤에 대한 인식도를 성경 안에서 다시 재인식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독교무용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경의하고 인정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런 '성령에 의한 무용'을 통해 우리 무용인 스스로도 정화되어 가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다른 삶들을 구원시키는 것으로 한 사람이라도 어둠에서 밝은 곳으로 구해내는 것이 기독교무용의 목적이다.

박순자 교수의 비전은 무용만하는 사람들 속에서가 아니라 기독교무용을 통해서 아픈 영혼들을 돌봐주고 기도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며 주변을 섬기면서 이루어가는 문화사역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다. 전공자가 뛰어들기 쉽지 않은 분야여서 비전공자들의 활동이 더 많기 때문에 본격적인 창작보다는 가벼운 율동 위주로 모방만 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체계 없이 기독교무용을 이어간다면 마치 서양의 중세사에서 '무용 금지령'이 있었던 것처럼 어려운 경우가 생길 수 있으므로 이제 더 이상 무질서한 것을 방치해서는 안 되며,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고민해야 한다고 말한다. 많은 교회에서 초청을 받

아 영적으로 성령이 충만한 공연을 하게 된다. 그러나 일부 교회에서는 아직도 '세간 무용단'으로 볼 때가 가장 마음이 아프다고 하였다. 그래서 선교무용단에서 삼가는 것이 많이 있다. 지나친 분장과 장신구, 화려한 의상을 삼가고 겸허하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공연을 하게 된다. holy spirit이 살아 있는 기독교무용은 누군가를 강화시키는 무용이라 생각한다. 따라서 아르곤무용단은 영혼(성령)과 몸짓의 예배를 드리며 은혜의 감동을 그대로 전달하고자 하는 노력을 한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훌륭한 지도자 양성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숙명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선교무용과정이 전문가반, 작품반, 기본반, 등으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다. 또한 예술성 높은 창작에도 힘을 기울여야 하므로 똑같이 흥내를 내고 겉으로 보여주는 것에만 집착하지 말고, 작품의 표현을 이루도록 해야 한다. 특히 기독교무용은 성령의 춤이기 때문에 표현하는 언어의 특성을 갖추어야 한다. 예수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자아 중심이 아닌 순수한 주제를 가지고 진하게 우려진 곰국 같은 표현의 움직임과 이미지를 이루면 더 큰 감동이 객석에 전달되기 때문이다.

기독교무용을 하는데 있어서, 말씀 안에서 목표를 분명히 해야 하며 체계적 훈련 시스템을 정립시켜야 한다. 그리고 학문적 이론적 지식을 튼튼히 해야 하며 기독교무용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이 공존하고 있어야 함을 기억해야 한다(박순자, 2015:12-15).

박순자 교수는 복음사역 안에서 기독교무용의 비전을 세 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첫 번째. 하나님을 만난 우리는 예수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 드린다.

두 번째. 현재 열린 예배를 통해 진행되고 있는 기독교무용들이 기독교무용의 역사적 배경을 통해서 분명한 이론적 실기적 정립을 통해서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세 번째. 기독교무용은 장르별, 연령별로 구별되지 않고 통합적으로 이루어져 세분화시키고 정리해서 교회 안과 밖에서 그리고 선교적으로 기독교 무용을 정립해나가야 한다.

이러한 기독교무용의 비전으로 무용을 도구로 복음화, 무용실기 및 이론의 영적 재조명, 대학 및 무용교육 전반에 걸친 전공자들의 기경화, 복음화 그리고 무용의 일반적 이해 및 확장을 위한 선교, 무용 예술 및 예술인의 선교화, 선교적 차원의 무용론 연구팀 양성을 위한 비전이 뒷받침되어진다. 이를 통해 선교사 양육 및 파송, 기독교 무용의 학문화, 기독교 무용제를 통한 선교인들의 우호증진 및 영적 교류를 통한 결합도모, 기독교무용 경연대회를 통한 기독교무용의 질적 향상 및 인재 발굴, 협력자 구성, 기독교무용학교 설립, 선교적 무용 지도자 양육 및 파송, 기독교계 교육기관 및 교과내용에 선교무용 교육의 확산, 기독교 무용 연구소 설치, 그리고 기독교무용 단체 간의 사역 및 정보교류이다(박순자, 2004: 92-93). 앞으로 종교무용으로 예술성을 더 높여 더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무용으로 만들어 나가길 기도한다고 자신의 비전과 목표를 밝혔다.

4) 관계

박순자 교수는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먼저 고백한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나를 구원시켜 주셨고 아버지 뜻에 살아가는 은총 받은 자녀라 고백한다.

또한 성도와의 관계에서는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성도와의 교제는 믿음 안에 섬김과 사랑을 통해서 함께 주님이 원하시는 화목한 구도자적인 일들을 성취하고 순종하기 위한 만남으로 이루어진 관계이다. 따라서 아르곤 선교무용단을 이끌고 있는 박순자 교수는 성도와의 관계는 몸을 은사로 쓰는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고 있는데, 서로의 모습을 거울로 보듯이 기독교무용에 대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정해주시는 그 길을 위해 서로 교제를 이루는 관계라 한다. 자신의 경험과 믿음과 체험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진정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서로 도와주고 사랑해주는 관계이다.

다음은 하나님 앞에서의 가장 중요한 관계는 기독교무용을 통해 믿는 관객들 보다 믿지 않는 관객들이 더 중요함을 강조한다. 기독교무용인들은 이들을 더 섬기고 사랑해야 하며 영혼구원을 위해 더 집중해야 된다고 강조한다. 기독교무용도 이제 더 예술성이 깊고 섬세한 작품을 만들어 나가, 종교인들뿐만 아니라 비종교인들도 함께 사랑하고 존경할 수 있는 작품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올바른 기독교무용인들이 탄생해야 한다. 그리고 기독교무용을 하는 목회자가 되어야 한다. 목회자 정도의 능력과 역량을 갖추고 발휘해야 하며 담대한 믿음이 필요하고, 무용의 실기와 이론 모두에 밝아야 한다고 말한다. '기독교무용'은 하늘나라 갈 때까지 할 수 있는 일이다. 박순자 교수는 하나님과 자신, 하나님과 성도 그리고 하나님과 비그리스도인들과의 관계를 가장 중요하다고 말한다. 박순자 교수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도록 더 노력할 예정이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 진실된 마음의 기독교무용으로 복음을 전할 예정이며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용전공자들 중 기독교인들을 발탁해서 기독교 무용예술을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박순자, 2015:80).

3. 한국교회에서의 기독교무용 적용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교회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경험 할 수 없고 하나님 사랑을 확인할 수 없다. 그러나 각 교회가 가지고 있는 본질을 잃은 채 대형교회의 프로그램을 쫓아가다보니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행사로서의 사람을 모으는데 집중하는 형태를 발견할 수 있다. 거창한 프로그램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생명이 있는 교회가 중요함을 인식하게 된다. 따라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먼저인, 그리고 이웃의 아픔을 먼저 품을 줄 아는 교회공동체는 너무 중요함을 깨닫는다. 이러한 현대교회의 문제점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의 목적을 동일하게 가짐으로 서로 다른 장르들을 하나로 통합하여 복음의 영적 감동을 전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현 시대의 누구나가 부담 없이 문을 두드릴 수 있고 자신의 마음을 내어 놓는 예배를 소망하게 된다. 건물이 아닌 마음이 소통하는 교회를 만들어 가는 공동체를 이루고자 하는 소망을 가진 한국교회 안에서 기독교무용이 어떤 모습으로 적용되는 것이 중요한지

를 인식하여야 한다.

박순자 교수는 한국교회에서의 기독교무용 적용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지도자는 자는 성령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바탕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독교무용이 전개가 되어야 한다. 지도자가 무용전공자인 경우에 일반적인 예술적 무용의 관념에서 보다 더 주님을 믿는 믿음과 말씀 안에서 신앙적 관념으로 변화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두 번째.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기독교무용의 전반적인 행위자체가 스스로의 우상이 되지 않아야 한다. 진심으로 하나님께 산제사로 예배드리고 받은 그 은총과 사랑을 감사로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비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경에서 만나는 하나님을 만나듯이 기독교무용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계속 연구하고 발전하도록 이루어져야 한다.

세 번째. 한국교회의 복음과 접촉점은 무용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무용의 목적보다 예수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을 전하고 세상 가운데 반석위에 서서 세상이 승리하기를 원하는 약한 자들에게 영적인 힘과 비전을 줄 수 있는 기독교무용이 되어야 한다.

네 번째. 예배가운데서도 기독교무용과 음악예술이 함께 접목된 예배를 같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 이러한 점은 하나님주신 거룩한 예배로 예수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더 강하게 경험한다.

IV. 결론

현대는 모든 문화가 디지털에서 통합으로 이루어지는 시대이므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느낄 수 있는 움직임은 영상과 같은 행위예술이 곧 무용예술이다. 따라서 실제로 자신이 느낀 하나님의 은혜와 신앙의 깊이를 가지고 몸과 마음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기독교무용이다. 그 믿음의 견고함이 쓰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으며 기독교문화의 폭을 넓혀주고 그 뿌리는 교회 안에서 잘 훈련이 되어야 한다.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은 순전한 기독 무용인은 하나님이 인정해주시는 생수가 자신을 통해 그 지역을 흘러넘치게 하는 사명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기독교무용은 성령이 이끄는 대로 은혜를 잃지 않고 겸손하게 믿음의 말씀과 사랑 안에서 어떻게 조화를 시켜나가는지가 중요하다. 진실 되고 순전한 기독교인으로 나가야 하며 성도로서 자신을 내려놓고 가는 신앙적 준비가 필요하다. 기독교무용을 하는 사람들과 교회는 적극적으로 이러한 점을 받아들여야 하며 이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기독교무용을 통해 이루는 영혼 구원의 아름다운 결실의 가치는 이 세상 어떤 기쁨과 바꿀 수가 없다.

개인의 삶속에 말씀이 적용되는 것이 삶의 예배라면 이 말씀을 표현하는 기독교무용은 한 동작 속에서 추상적, 사실적, 상징적 말씀주제의 핵심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20 여 년간 보아왔던 박순자 교수의 네 가지 리더십인 교육과 무용이라는 기술과 코람데오의 성품, 복음 사역에 대한 비전, 하나님과 나, 이웃과 나라는 관계를 통하여 하나

님 앞에 사명자로 올바르게 서 있는 모습은 기독교무용을 하는 제자들에게는 큰 힘이 되며 영적 감동이 된다. 무용과 교수이면서 목회자로서, 교육계에서 그리고 사역현장에서 하나님나라를 위해 먼저 무릎으로 달려 나간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지 알기 때문이다. 오직 예수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허용치 않는 그의 삶은 '순전하게 바르게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아야하며 순간마다 하나님과 호흡하며 작은 것에도 충성된 일꾼이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제자훈련을 해야 한다고 하였다. 언제나 엄하게 훈련시켰던 가르침은 사도바울처럼 강직하고 온전한 코람데오로 감사함과 감동으로 기독교무용을 하는 사역자들에게 영적인 모델이 되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달려갈 수 있는 큰 힘을 모두에게 공급해주고 있다.

'인간의 삶은 한시적이지만 이 땅에서 행하는 것은 영원성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더욱 건강하고 신실하게 맑은 영혼들을 위한 기도로 기독교무용을 해야 한다는 말처럼 후학들이 그 정신과 실천성을 보급하며 기독교 무용인에게 필요한 리더십을 상기해 볼 가치가 있다고 사료된다.

참고문헌

- 박순자 (2001), 아름다운 춤, 성령의 춤. 서울: 창조.
- 박순자 (2004), 21세기의 기독교적 무용의 접근. 서울: 금광.
- 톨스토이, 이철(역)(1988). 예술이란 무엇인가, 서울: 범우사.
- Macarthur, John, 한화룡(역)(1986). 참된 예배, 서울: 두란노서원.
- 마이클프로스트. 앨런 허쉬, 지성근 역(2009), 새로운 교회가 온다. 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 송정은(2001). 움직임의 철학 : 한국체육철학지. 제9권 1호.
- 이선미(2011). 기독교무용의 본질에 관한 연구-톨스토이 예술관을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순자. "우리나라 선교무용을 지켜온 박순자" 『Dance AND Opera』37(2015): 51-81.
- 박순자, "박순자 목사의 녹취내용" 2017년 10월 27일 녹취기록.
-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103094&cid=40942&categoryId=31576>